‘소리바다’ 유료화
이용료 월 3,000원

P2P(개인대 개인) 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업체 ‘소리바다’가 10일부터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한다.

이용료는 월 3천원으로 책정했으며, 유료회원은 ‘소리바다’의 P2P서비스를 통해 MP3 파일을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연말까지 현재 회원 1천500만 명 가운데 10%를 유료 회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유료화를 계기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미국 등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윷놀이 도박 5명 영장
광주북부경찰, 16명 불구속 입건

광주 북부경찰은 9일 하천 주변을 돌아다니며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로 박모(50·광주시 북구 임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최모(52·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씨 등 16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광주시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중문 앞 용봉천 고수부지에 페인트로 윷놀이 말판을 그려놓고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판을 개장, 10%의 판돈을 뜯어내는 등 지난 1월부터 150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주로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도박판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고액 배당” 1,000억대 투자금 유치
유명 탤런트 아들 구속

서울 관악경찰은 9일 고액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유명 탤런트의 아들인 유사수신업체 N사 사장 정모(40)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양천구 신정동에 N사를 차려놓고 매일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고액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9천여명으로부터 1천34억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정씨의 아버지이자 이 업체 회장인 유명 탤런트 정모(6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태풍 오른쪽’ 큰 피해 우려

논 물꼬 트기 태풍 ‘에위니아’의 북상으로 광주·전남에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장흥 들녘의 농민들이 9일 오후 폭우에 대비, 논의 물꼬를 트고 있다.

/장흥=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에위니아’ 오늘 서남해안 통과
최대 200㎜ 폭우…강풍·해일
농어촌·위험지구 철저 대비를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가 10일 우리나라 서남해안을 통과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10일 새벽 3시부터 광주와 전남지역이 태풍 진로의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태풍이 몰고오는 폭우는 최대 200㎜로 예상되며, 서남해안 일부 해안지방은 강풍 및 해일도 우려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기상청 등 관련 기관들은 이 때문에 태풍 진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며, 농어민들에게 사전대비 및 주의를 당부했다.

◇여객선·항공기 운항 중단=10일 목포·여수·완도에서 출항하는 여객선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뱃길이 끊기는 곳은 ▲진도 팽목~서거차 ▲영광 개마~안마 등 목포 22개 항로 30척, 완도~제주 등 완도 16개 항로 21척 ▲여수~거문도 ▲고흥 녹동~ 제주 등 여수 12개 항로 14척 등 총 50개 항로 65척이다. 여객선 입출항의 전면 통제로 섬 주민 등 이용객 1만2천여명(완도 3천500명·여수 2천200명·목포 6천명)의 발목이 2~3일간 묶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9일에도 목포에서 출발하는 3개 항로 3척의 운행이 통제됐으며, 완도에서는 9척의 배가 운행 도중 되돌아왔다. 여수는 9개 항로 11척의 운행이 통제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항공사는 10일 태풍의 진행 상황에 따라 운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이날 하루 동안 여객기 운항은 불투명한 상태다.

◇농·어촌 비상=600여 농가 3천300동의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나주시 산포면 주민들은 태풍 북상 소식에 주말과 휴일도 잊은 채 일제히 비닐하우스 점검을 벌이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화순군 도곡면과 담양군 무정면, 영암군 신북면 농민들도 받침목을 대거나 줄로 묶는 등 시설하우스를 정비했다.

태풍의 전면에 위치한 흑산도·홍도 등 신안지역과 여수시 돌산면·남면·화정면 가두리 양식 어민들은 해상에 고정된 시설물 등을 끊어지지 않게 끈으로 단단히 묶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전남 연안에 있는 어선 3만5천598 척 가운데 0.5t 이하 작은 배 2천여 척은 육지로 올려졌다. 3만500여 척은 항내에 결박했다. 나머지 2천여 척은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광주·전남 관공서 비상=광주시는 지난 7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도 기존 6명에서 13명으로 늘렸다. 각 구청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10곳(동구 소태동 686번지 주변, 광산구 신촌동 공군비행장 주변 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전남도는 10일부터 도청 전 직원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도는 방조제·방파제·하천·둑·교량·배수장 등) 8천672개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전남도는 또 침수위험 63곳, 붕괴위험 11곳, 취약 방재시설 13곳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2000년 이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연도	이름	인명피해	재산피해
2002	루사	124명 사망	5조4천686억원
2003	매미	117명 사망	4조2천225억원
2004	메기	9명 사망	3조4천156억원
2005	나비	6명 실종	1천385억원

■ 태풍 왜 오른쪽이 피해 크나?
진행 방향 맞물려 위력 배가

‘에위니아’(EWINIAR)는 중심기압이 965헥토파스칼(hPa)로 태풍의 중심에서 370㎞ 떨어진 곳에도 초속 35m(시속 123㎞)의 강풍이 불고 있다.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보퍼트 풍력등급표’(Beaufort wind scale)(0~12까지 13등급)에 따르면 이 정도 바람은 마지막 등급인 ‘싹쓸이 바람’(Hurricane)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상을 운항하는 큰 선박도 침몰시킨다.

크기로 따지면 소·중·대·초대형 가운데 ‘중형급’. 강도로 따지면 약·중·강·매우 강 가운데 ‘강’에 속하는 규모다.

‘에위니아’는 지난 1999년 8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안겼던 태풍 ‘올가’와, 2000년 8월의 ‘프라피룬’ 진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태풍은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1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냈다.

초속 17m 이상의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은 북반구에서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이때문에 태풍의 진행 방향과 맞물리는 오른쪽 반원(半圓)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정도가 왼쪽보다 세며, 이를 ‘위험 반원’(危險 半圓·dangerous semicircle)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왼쪽은 ‘가항 반원’(可航半圓·navigable semicircle)으로, 태풍의 진로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하다. 이런 까닭에 큰 배들도 태풍을 만나게 되면 왼쪽 반원으로 뱃머리를 돌린다.

태풍이 불 때의 에너지는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만 배가 넘는다. 또 비바람의 강도는 화산 폭발보다도 훨씬 더 큰 위력을 지니고 있다.

중심으로부터 100~130km에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강도는 계속 증가하여 중심으로부터 30~40km에 이르면 폭우가 억수로 퍼붓는다. 이 마지막 지대에서 바람은 초속 80m까지 이르기도 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역대 주요 태풍 위력 비교

구분	사라 (1995.9.15)	셀마 (2002.8.30)	루사 (2002.8.30)	매미 (2003.9.12)
최대순간풍속 (m/s)	52.7(부산)	40.3(여수)	39.7(여수)	60(제주)
최저기압 (hPa)	952(부산)	972(여수)	970(여수)	954(통영)

“범죄수익 목적 비용은 추징금 대상”

쌍나팔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도 범죄를 통해 고수익을 얻기 위한 소비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모두 추징금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9일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고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48)씨에게 추징금 5억9천6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수익을 얻는 데 든 비용은 추징금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

○…최씨는 1·2심 재판부가 모두 집행유예와 5억9천6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자, “오락실 손님들에게 돌려준 금액과 직원 월급 등 경비를 빼면 수익은 1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고.

/연합뉴스